

주요 내용

1. [세계와 한국의 인구 현황 및 전망]
50년 후, 환갑이 전국민의 중간 나이!
2. 최근 조사통계 언론보도
 - 1) 한·일 국민 상호인식 조사
 - 2) 세계를 위협하는 요인들



우리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50년 후, 환갑이 전국민의 중간 나이!

대한민국의 50년 전과 50년 뒤는 전혀 다른 세상이다. 1960년대부터 시작된 ‘아이 적게 낳기 운동’은 1970년대에 이르러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라는 표어로 변화되고, 1980년에는 다시 두 자녀에서 한 자녀로 수정됐다. 인구 증가에 대한 우리 사회의 긴박함과 부담감이 컸던 것이다.

그런데 상황이 바뀌었다. 1990년대부터 산아제한 정책을 포기하고 정부의 출산정책이 전면 수정되었다. 이미 합계출산율(2021년)은 50년 전 대비 82%나 감소해 1명이 채 되지 않는 0.81명이다. 이번 넘버즈에서 사용한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를 반영한 세계와 한국인구 현황 및 전망’ 자료에 의하면 50년 뒤 2070년이 되면 환갑이 전국민의 중간 나이가 된다. 또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 가까이(46%)나 돼, 인구 2명 중 1명은 ‘노인’이며, 이는 세계 고령인구 비중(20%)의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세계에서 가장 늙은 국가가 되는 것이다.

넘버즈 <160호>에서는 세계 인구와 우리나라 인구 현황 비교를 통해 한국의 인구 문제의 심각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의 고령화와 다음세대의 경제적 부담 등 당면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국가와 지자체, 교회와 국민 개개인의 관심과 지혜가 모아지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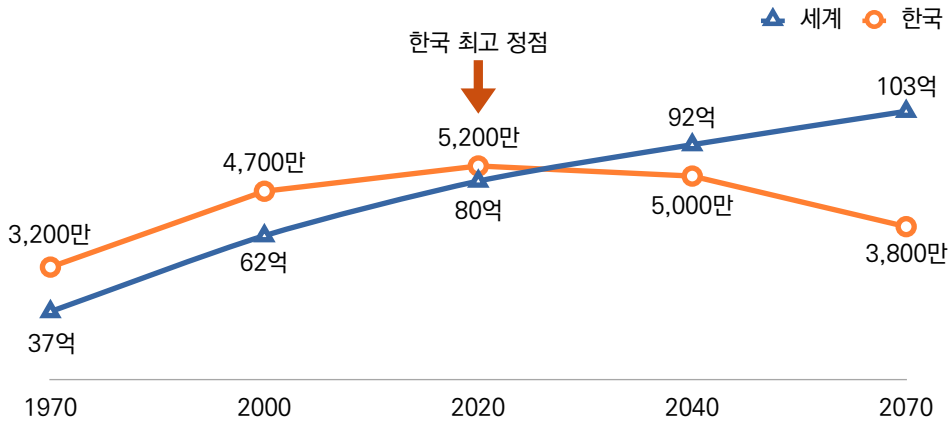


01

세계인구 현재 80억 명, 50년 뒤 103억 명으로 29% ↑, 한국은 27% ↓

- ▶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 현황 및 전망'에 따르면 올해 80억 명 수준인 세계인구가 2070년엔 103억 명으로 2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 반면 한국 인구는 2020년 5,200만 명에서 정점을 찍고 감소하기 시작해 50년 뒤인 2070년에는 3,800만 명 수준으로 27%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세계 인구 추이와 반대로 가고 있다.

[그림] 세계와 한국의 인구 추이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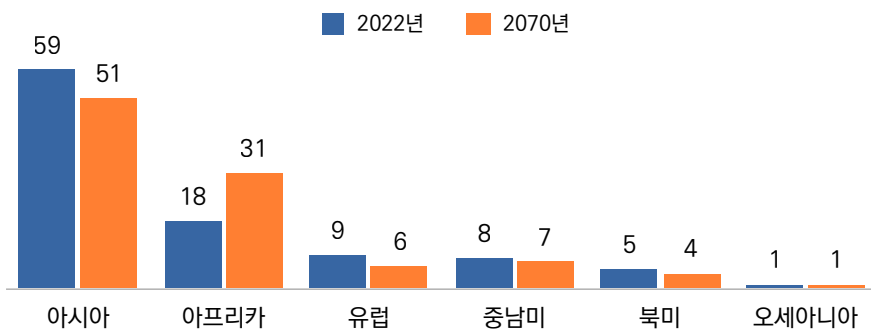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통계청,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 보도자료, 2022.09.05.

◎ 아시아, 현재 세계인구의 59% 차지, 향후 아프리카 인구 크게 증가

- ▶ 2022년 기준 세계인구의 대륙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아시아'가 59%로 압도적으로 많고, 다음으로 '아프리카' 18%, '유럽' 9%, '중남미' 8%, '북미' 5% 등의 순이다.
- ▶ 2070년이 되면 아시아가 51%로 8%포인트 줄어들고, 대신 아프리카가 31%로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유럽과 미대륙은 약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대륙별 세계인구 구성비 (2022년 기준)



*자료 출처 : 통계청,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 보도자료, 2022.09.05.

◎ 인구 가장 많은 국가, 올해는 중국이지만 20년 뒤엔 인도가 1위로 올라선다

- ▶ 국가별 인구를 살펴보면, 올해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국가는 세계인구의 18%를 차지하는 중국(14.3억 명)이지만 2040년부터는 인도(16.1억 명)가 1위로 올라설 것으로 전망된다.

[표] 국가별 인구 및 인구순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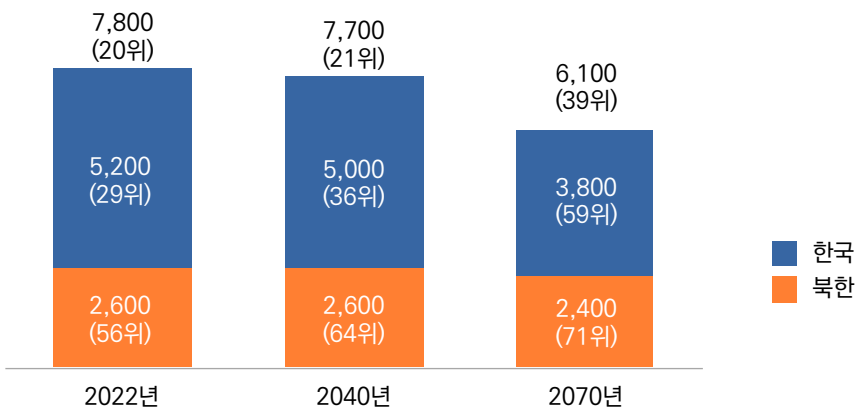
순위	2022년		2040년		2070년	
	국가	인구	국가	인구	국가	인구
1	중국	14.3억 (세계인구의 18%)	인도	16.1억	인도	16.9억
2	인도	14.2억	중국	13.8억	중국	10.9억
3	미국	3.4억	미국	3.7억	나이지리아	4.7억
4	인도네시아	2.8억	파키스탄	3.2억	파키스탄	4.4억
5	파키스탄	2.4억	나이지리아	3.2억	미국	3.9억
6	나이지리아	2.2억	인도네시아	3.1억	인도네시아	3.2억
7	브라질	2.2억	브라질	2.3억	콩고민주공화국	3.2억
8	방글라데시	1.7억	방글라데시	2억	에티오피아	2.7억
9	러시아	1.5억	에티오피아	1.8억	브라질	2.1억
10	멕시코	1.3억	콩고민주공화국	1.7억	방글라데시	2.1억

*자료 출처 : 통계청,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 보도자료, 2022.09.05

◎ 북한 인구, 2022년 기준 남한의 절반 수준!

- ▶ 북한 인구는 1970년 1,500만명에서 2022년 2,600만명으로 증가하였으나, 이후 2040년까지 정체현상을 보이다 2070년에는 2,400만명으로 감소하지만 현재 대비 크게 줄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 2022년 기준 남북한의 총인구는 7,800만 명인데, 남한 5,200만 명, 북한 2,600만 명으로 북한 인구가 남한의 절반 수준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 한국의 인구 순위는 올해 29위에 랭크됐는데, 2040년 36위, 2070년엔 59위로 하향 추이를 보인다. 남북한을 합한 인구 순위도 2022년과 2040년은 20위권에 머물다가 2070년 39위로 떨어지는 것으로 예상됐다.

[그림] 남북한 인구 추이 (만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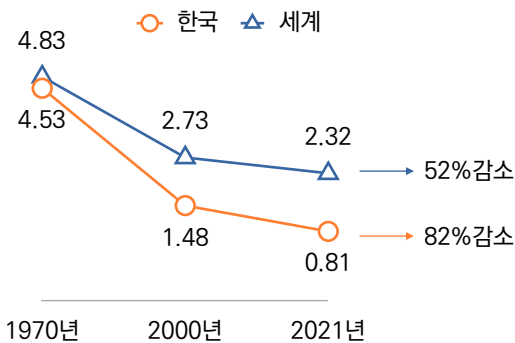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통계청,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 보도자료, 2022.09.05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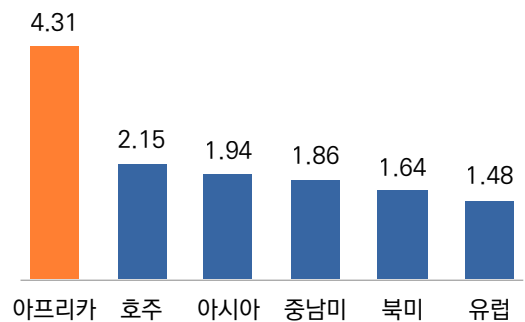
합계출산율 50년 전과 비교해보니, 한국은 0.81명으로 82% 감소해!

- ▶ 세계 인구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한국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왜일까? 합계출산율의 영향이 절대적이다. 2021년 세계 합계출산율은 2.32명으로 50년 전(1970년) 4.83명 대비 절반 정도 감소한 것에 비해 한국 합계출산율은 4.53명에서 0.81명으로 무려 82%나 줄었다.
- ▶ 대륙별 합계출산율(2021년 기준)을 살펴보면, 아프리카가 4.31명으로 다른 모든 대륙의 2배가 넘는 정도로 압도적으로 높다.

[그림] 세계와 한국의 합계출산율 (가임여자 1명당)



[그림] 대륙별 합계 출산율 (2021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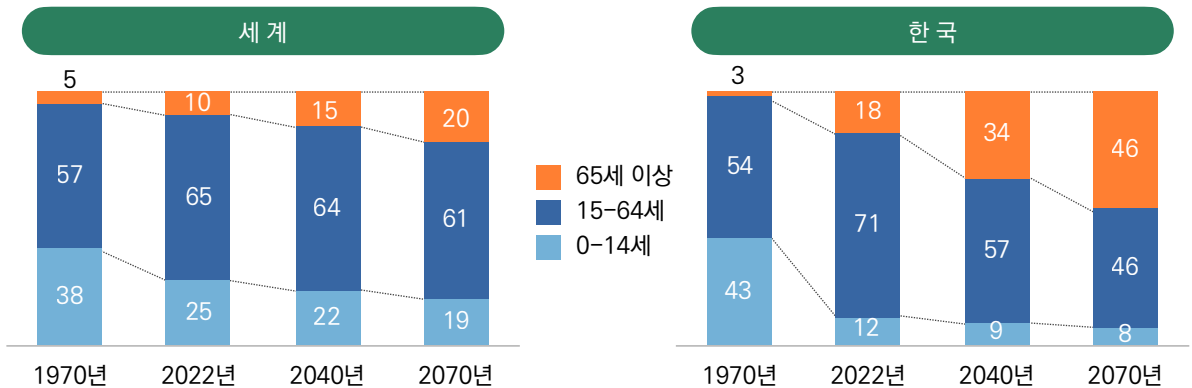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통계청,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 보도자료, 2022.09.05

03

점점 늙어가는 대한민국, 한국 50년 뒤, 인구 절반 가까이가 '노인'!

- ▶ 한국의 인구구조 변화를 살펴보면 특히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의 증가가 심상치 않다. 50년 뒤 세계 인구 중 고령인구가 5명 중 1명(20%)일 때 한국은 절반 가까운 인구(46%)가 고령인구로 세계에서 가장 늙은 국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 한편 생산연령인구(15~64세)의 경우 '한국'이 2022년 71%에서 2070년은 46%까지 감소해 65세 이상 인구 비중(46%)과 비슷해질 것으로 보여 부양문제가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 ▶ 반면 '세계 인구' 중 생산연령인구의 구성비는 같은 기간 65%에서 61%로 소폭만 줄어 여전히 고령인구(20%)보다 3배 높다.

[그림] 세계와 한국의 인구구조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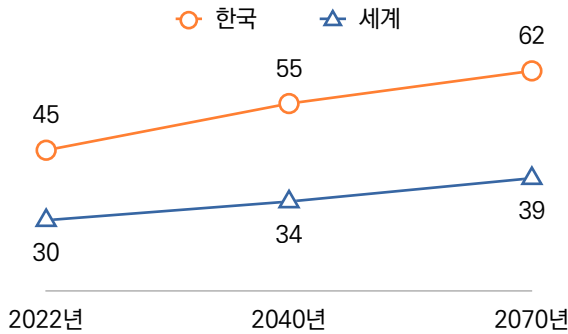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통계청,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 보도자료, 2022.09.05

◎ 한국 중위연령, 2022년 45세 → 2070년 62세... 환갑이 ‘중간 나이’!

- ▶ 0세부터 최고령자까지 연령 순서로 나열할 때 중앙에 있는 사람의 연령을 말하는 ‘중위연령’을 보면 세계인구의 경우 올해 30세에서 2070년 39세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 한국의 중위연령은 2022년 45세, 2040년 55세, 2070년 62세로 세계 인구 중위연령과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 ▶ 2070년이 되면 환갑 나이가 전 인구의 중간에 위치하게 된다.

[그림] 세계와 한국의 중위연령 (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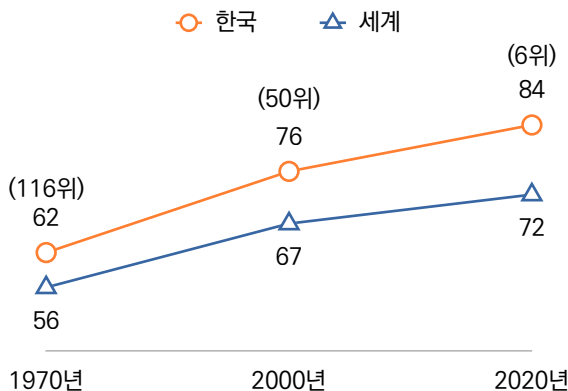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통계청,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 보도자료, 2022.09.05

◎ 2020년 기준, 세계 기대수명(72세)보다 한국 기대수명이 12세나 더 높아!

- ▶ 앞서 언급한 저조한 합계출산율과 함께 한국 인구 데이터에서 눈에 띄는 점은 세계 평균을 훌쩍 넘어서는 한국인의 높은 기대수명(해당연도 0세 출생아가 앞으로 살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연수)이다.
- ▶ 2020년 '한국의 기대수명'은 84세로, 같은 해 '세계 기대수명'인 72세보다 12세나 더 높았고, '한국의 기대수명 순위'는 1970년 116위(62세)에서 반세기 만(2020년)에 모나코(1위, 87세), 홍콩, 마카오, 일본, 호주의 뒤를 이어 6위(84세)로 급상승했다.
- ▶ 이상과 같이 높은 기대수명과 낮은 출산율의 영향으로 '대한민국'의 고령화 추세는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그림] 세계와 한국의 기대수명 (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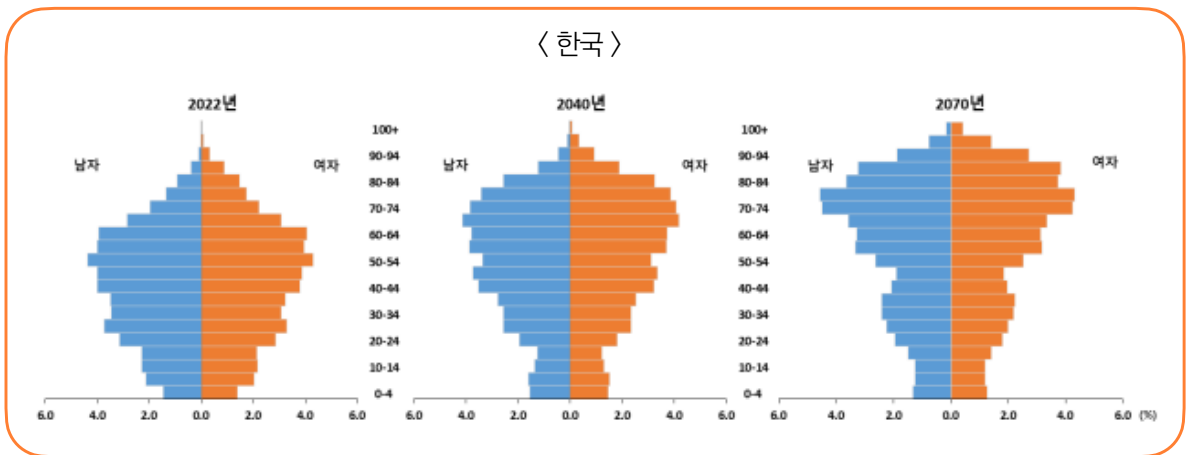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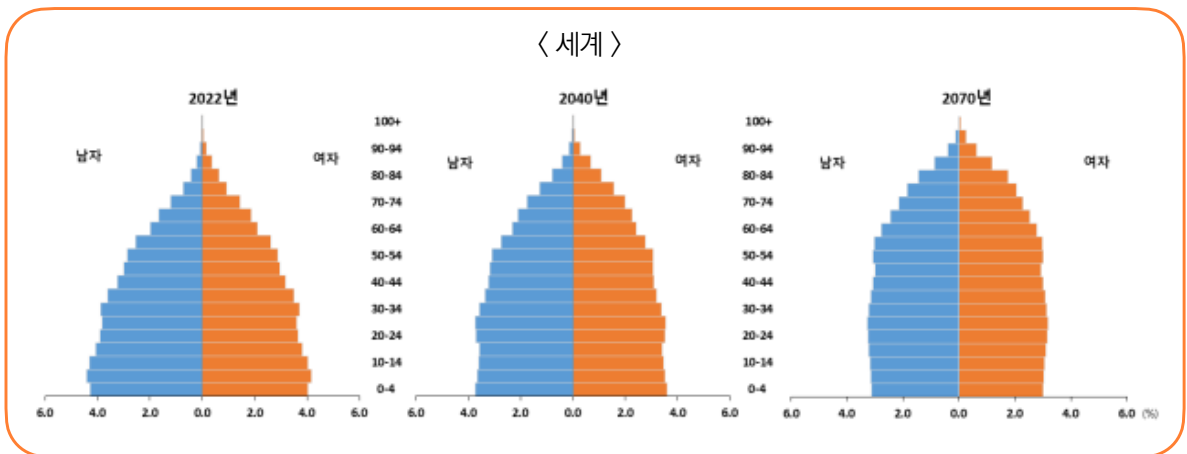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통계청,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 보도자료, 2022.09.05

04

50년 후 인구피라미드, 세계인구는 항아리형 유지, 한국은 극단적인 역삼각형 구조!

- ▶ 한국의 인구 피라미드를 살펴보면 2022년 50~60대가 가장 많은 방추형(항아리형) 모양에서 향후 점점 유소년 인구(0~14세)와 생산가능 인구(15~64세)가 줄어들고, 60대 이상 노년층이 두터워지는 역삼각형 구조로 변한다.
- ▶ 지금의 유소년 인구를 포함한 미래 세대가 짊어질 '부양'의 무게가 큼을 보여주는 그림이다.
- ▶ 반면, 세계인구는 향후 50년간 항아리형을 유지하면서 유소년/젊은 연령대 인구가 받쳐주는 모양이다.

[그림] 인구 피라미드 추이 (세계 vs 한국)



*자료 출처 : 통계청,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 보도자료, 2022.09.05
 **총인구에 대한 연령별 인구 구성비(%)를 이용하여 작성함

05

한국의 노년부양비, 2070년엔 101명으로 세계 1위 전망!

- ▶ 노년층의 증가로 '한국의 노년부양비'(15~64세 생산연령인구 100명 당 부양해야 할 65세 이상 노인인구를 말함)는 2022년 25명(56위)에서 2070년 101명으로 무려 4배 높아지며 세계 1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 2070년이 되면, 생산연령인구(15~64세) 1명이 노인 1명 이상을 부양하게 되는 것이다.

[표] 주요 국가별 노년부양비**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순위	2022년		2070년	
	국가(지역)	노년부양비(명)	국가(지역)	노년부양비(명)
	세계 평균	15	세계 평균	33
1	모나코	70	한국	101
2	일본	51	생바르텔레미	100
3	세인트헬레나	50	홍콩	92
4	이탈리아	38	푸에르토리코	86
5	핀란드	38	몰타	85
6	마르티니크	37	알바니아	83
7	그리스	36	타이완	82
8	푸에르토리코	36	일본	77
9	포르투갈	36	안도라	76
10	프랑스	35	싱가포르	76
56	한국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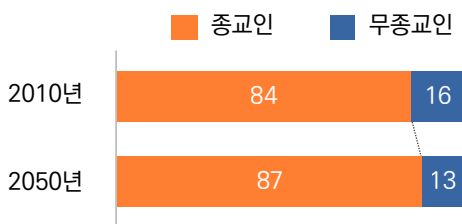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통계청,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 보도자료, 2022.09.05
 **236개 국가(지역)를 대상으로 작성함(교황청 제외)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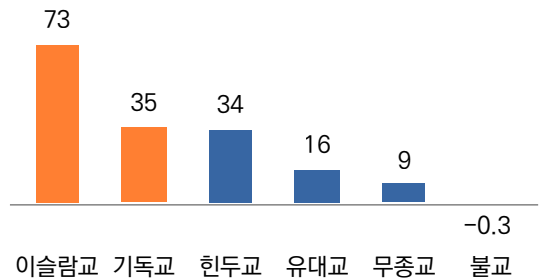
세계 종교인구, 종교인 84%, 무종교인 16%!

- ▶ 이번에는 세계 종교인구를 살펴보자. 미국의 퓨리서치센터가 2010년부터 2050년까지 세계 종교 인구 변화를 예측한 결과, 세계인구 중 종교인이 80% 이상, 무종교인은 10%대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2050년까지 종교인 비율이 약간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 ▶ 주요 종교별 성장률을 살펴보면 이슬람이 73%로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010-2050년 인구 변화 예상 (종교인 비율 vs 무종교인 비율, %)



[그림] 주요 종교 성장률 (2010-2050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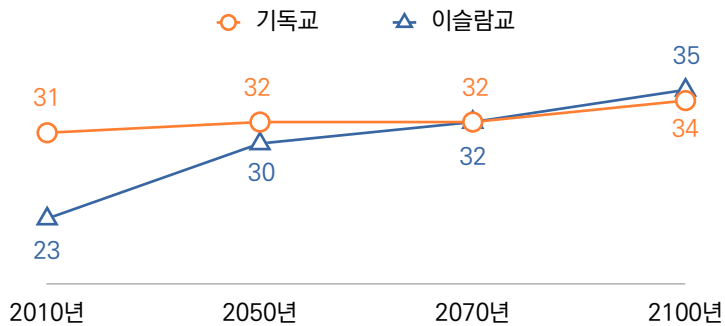


*자료 출처 : 미국 퓨리서치센터, 「세계종교의 미래 보고서(2010-2050)」, 2015.04.02

◎ 2070년 이후, 이슬람교가 기독교를 제치고 세계 1위 종교에 올라설 전망!

- ▶ 현재 기준 세계 1위 종교는 기독교이다. 2위는 이슬람교인데 그 격차가 점점 줄어들어 2070년이 되면 그 비율이 동일하게 되고 2070년 이후가 되면 이슬람교가 기독교를 제치고 1위 자리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기독교와 이슬람교 비율 연도별 예측 추이 (전세계 인구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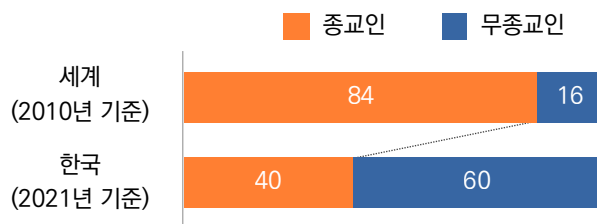


*자료 출처 : 미국 퓨리서치센터, 「세계종교의 미래 보고서(2010-2050)」, 2015.04.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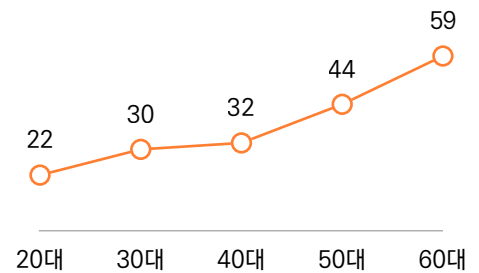
◎ 한국의 종교현황, 세계와 반대로 가고 있어!

- ▶ 세계는 종교인 비율이 80%가 넘고, 점점 종교인 비율이 증가하고 있지만, 한국은 다른 양상을 보인다. 2021년 성인기준 무종교인이 60%를 차지해 종교인(40%)보다 더 많은데, 앞으로 무종교인이 더 많아지는 탈종교화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 특히 MZ세대의 종교인 비율이 20~30%대에 머무르고 있는데, 이는 미래 한국종교가 어떠할지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이다.

[그림] 종교인 비율 (세계 vs 한국**, %)



[그림] 한국의 연령별 종교인 비율 (%)



*자료 출처 : 미국 퓨리서치센터, 「세계종교의 미래 보고서(2010-2050)」, 2015.04.02

**한국 : 한국갤럽, 「갤럽리포트」, 「한국인의 종교 1984-2021」, 2021.05.18-20 (전국 만19세 이상 1500명, 면접조사, 2021.3.18.~4.7)(한국은 만19세 이상 성인 기준 임에 유의할 것)

「넘버즈」는 인구 문제에 꾸준한 관심을 두고 있다. 그래서 인구 문제, 1인 가구 문제, 고령화 문제 등을 자주 다루었다. 우리나라 인구는 2020년에 인구 5200만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다. 감소 폭이 가팔라서 2040년에는 5000만 명, 2070년에는 3800만 명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인구 감소 폭이 큰 것은 자녀를 낳지 않기 때문이다. 2021년 기준으로 세계 평균 합계출산률(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은 2.32명인데 우리나라는 그보다 약 1/3이 줄어든 0.81명이다.

인구 감소는 3가지 문제점을 낳는데, 첫째는 전체 인구가 감소하면서 국가 전체 소비를 줄이게 되어 사회경제적 기반 약화를 초래한다. 인구는 소비력과 직결된다.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들면 소비가 줄어들고 내수 시장이 위축되어서 경제가 활력을 잃게 될 것이다. 둘째로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사회적 부양 부담이 늘어난다는 점이다. 셋째로는 부양 부담이 늘어나는 이상으로 더 많은 경제적 부가 가치를 생산해서 사회경제적 재생산에 투자해야 하는데,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면 사회경제 시스템을 원활하게 운영하기가 어렵다.

인구 감소를 넘어서 인구 재앙이라고 할 정도까지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전 세계 인구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2020년 80억 명의 세계 인구는 2040년에는 92억 명으로 증가했다가 2070년에는 103억 명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인구가 이렇게 증가하는 것은 아프리카 인구의 급증에 힘입은 바 크다. 우리나라 합계출산률이 0.81명을 기록한 2021년에 아프리카는 4.31명이어서 우리나라 보다 약 5배 더 높은 수치를 보였다. 아시아에서도 중국은 산아제한 정책 때문에 인구가 줄어들지만 인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 남아시아에서 인구가 늘어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3~5쪽)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들은 저개발국가들이다. 이 나라에서는 국내 일자리가 부족해서 많은 인력들이 해외로 빠져 나가고 있다. 이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서 산업 생산에 크게 기여한지도 오래되었다. 우리나라 체류 외국인인 전체 인구 대비 3.8%를 차지하는데, 이제 국내 제조업에서 외국인 이주 노동자가 없다면 공장이 돌아가지 않을 정도가 되었다. 심지어 농업에서도 외국인 인력이 없으면 농사 자체가 힘들다고 한다. 우리나라 인구 감소가 지속되는 한 외국인 비율은 점점 높아지고 이들의 우리나라 경제 영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가까운 미래에 외국인이 전체 인구의 30% 정도까지 되어야 우리 경제가 유지될 것이라는 전문가의 얘기도 있다.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은 이슬람, 힌두교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점차 다종교 사회가 되고 이로 인한 갈등이 나타날 것이다. 2021년 대구 대현동에 무슬림들이 모스크를 지으려 하자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사회적 이슈가 된 적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갈등들은 점점 늘어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자기 종교를 포교, 전도하면서 교회와 부딪힐 일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다.

교회는 외국인 증가로 인한 다종교 사회로 변해가는 현실에 주의를 돌려야 한다. 이 과정에서 타 종교와 불필요하게 갈등을 야기시키지 않고, 우리 기독교가 참 종교이며 진실한 공동체라는 것을 보여주므로 다종교 사회에서 기독교의 위상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교회들은 해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 후원하는데, 해외보다 여건이 좋은 국내에서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선교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주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선교가 종종 그들을 전도의 대상으로만 여겨 달콤한 약속과 물질을 제공하면서 빠진 오류를 거울삼아 교회는 진정성을 가지고 세심하게 접근해야 한다. 외국 이주민들을 사랑하는 공훈의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는 선교가 아니라면 실패하기 쉬울 것이다.

1.[한·일 국민 상호인식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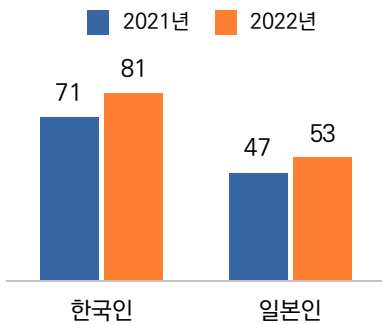
2.[세계를 위협하는 요인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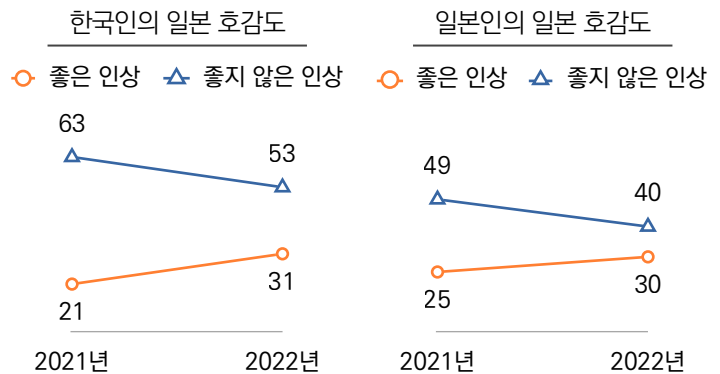
한·일 양국 모두, 서로에 대한 호감도 작년 대비 5~10%p 상승!

- ▶ 최근 동아시아연구원과 일본 싱크탱크인 겐론 NPO가 공동 발표한 '한·일 국민 상호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일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 ▶ 다만 '한·일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답한 한국인은 10명 중 8명으로 나타난 데 반해 일본인은 절반(53%)이 '관계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답해 양국 간에 다소 온도 차이를 보였다.
- ▶ 한편 한·일 양국 국민의 상대국에 대한 호감도를 보면 한국인 중 일본에 호감을 갖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1%로 집계돼 작년 대비 10%p 상승했고, 일본인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 역시 전년 대비 5%p 증가해 30%로 올랐다.

[그림] 한·일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 (노력할 필요 있다** 응답률, %)



[그림] 한·일 상대국에 대한 인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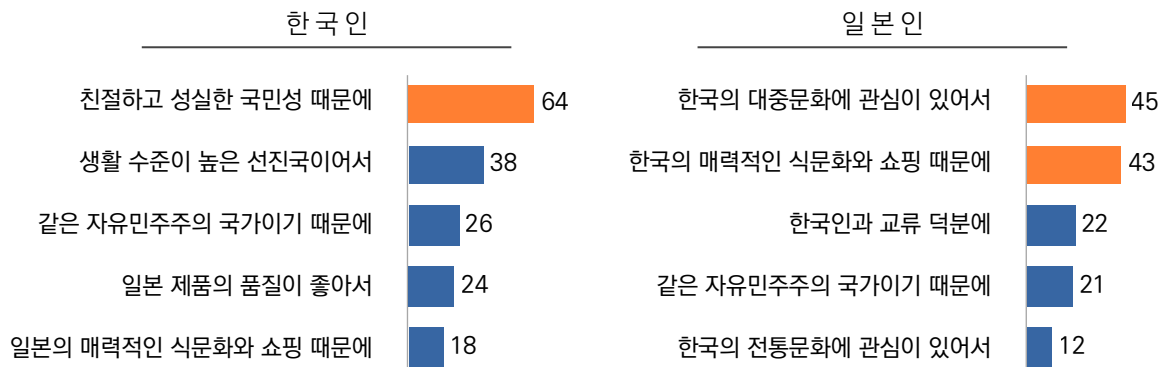


*자료 출처 : 동아시아연구원/겐론NPO, '제10회 한일 국민 상호인식조사' 보도자료, 2022.09.01. (한국 성인 남녀 1028명, 대면 면접조사, 2022.07.21.-08.08 / 일본 성인 남녀 1,000명, 방문유치회수, 2022.07.23.-08.14)
**2점 척도 질문임

◎ 상대국에 좋은 인상 가진 이유, 한국인은 일본사람 요인, 일본인은 한국의 문화 요인이 크게 작용!

- ▶ 좋은 인상을 가진 이유로 한국인 응답자의 64%가 '일본의 친절하고 성실한 국민성'을 높게 평가했다. 다음으로 '생활 수준이 높은 선진국이어서(38%)',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26%)' 등의 순이었다.
- ▶ 일본인 응답자의 경우 '한국의 문화' 때문이라는 의견이 높았다. 한국의 대중문화(1위, 45%)와 식문화(2위, 43%), 전통문화(5위, 12%)에 대한 일본인의 관심이 높은 점이 주목된다.

[그림] 상대국에 '좋은 인상' 가진 이유 (복수응답, 상위 5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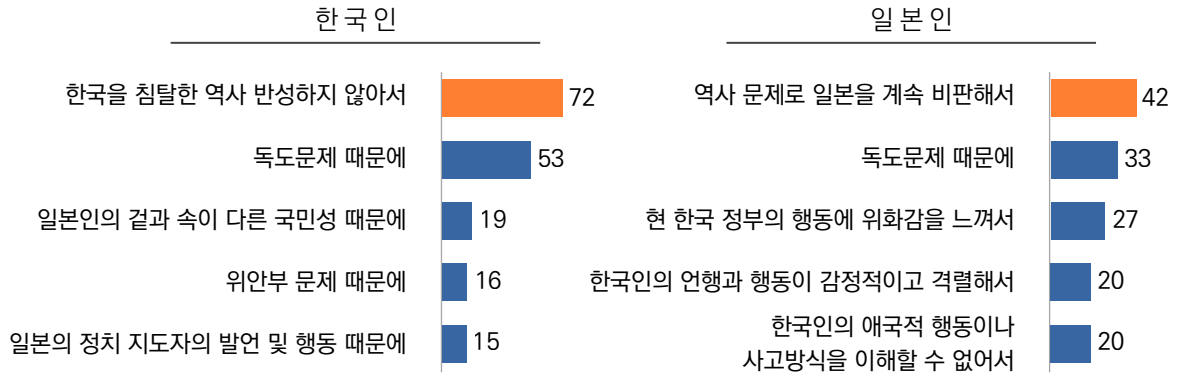


*자료 출처 : 동아시아연구원/겐론NPO, '제10회 한일 국민 상호인식조사' 보도자료, 2022.09.01. (한국 성인 남녀 1028명, 면접조사, 2022.07.21.-08.08 / 일본 성인 남녀 1,000명, 방문유치회수, 2022.07.23.-08.14)

◎ 상대국에 좋지 않은 인상 가진 이유, 한일 모두 '역사 문제' 가장 많이 꼽아!

- ▶ 한·일 상대국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진 이유로 양국 모두 '역사 문제'를 가장 많이 꼽았다. 한국인의 경우 '한국을 침탈한 역사를 반성하지 않아서(1위, 72%)'를, 일본인은 '역사 문제로 일본을 계속 비판해서(1위, 42%)'를 비호감 요인으로 들었다.
- ▶ 그 외에 '독도 문제'도 주요 요인(2위)으로 나타나 양국 국민이 '역사와 영토 문제'에 대해 서로에게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상대국에 '좋지 않은 인상' 가진 이유 (복수응답, 상위 5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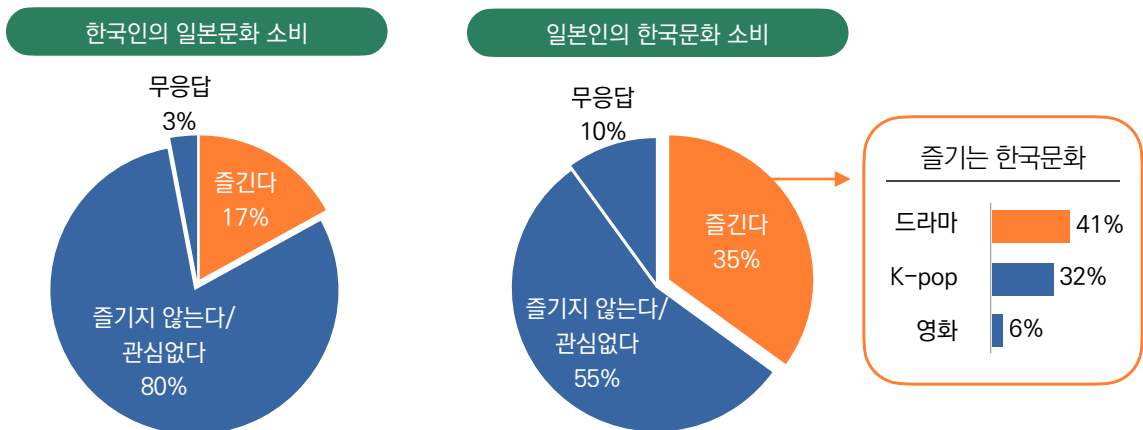


*자료 출처 : 동아시아연구원/겐론NPO, '제10회 한일 국민 상호인식조사' 보도자료, 2022.09.01. (한국 성인 남녀 1028명, 면접조사, 2022.07.21.~08.08 / 일본 성인 남녀 1,000명, 방문유치회수, 2022.07.23.~08.14)

◎ 상대국 문화 '즐긴다', 한국인은 17%, 일본인은 35%

- ▶ 한·일 양국 국민들에게 상대국의 대중문화 즐기고 있는지 물어보았다. 그 결과, 한국인의 경우 일본 대중문화를 즐기는 비율이 17%인 반면, 일본인의 한국 대중문화 즐기는 비율은 35%로 두 배 정도 차이를 보였다.
- ▶ 일본인은 한국 대중문화 중 드라마와 K-pop을 주로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상대국의 대중문화 소비 정도



*자료 출처 : 동아시아연구원/겐론NPO, '제10회 한일 국민 상호인식조사' 보도자료, 2022.09.01. (한국 성인 남녀 1028명, 면접조사, 2022.07.21.~08.08 / 일본 성인 남녀 1,000명, 방문유치회수, 2022.07.23.~08.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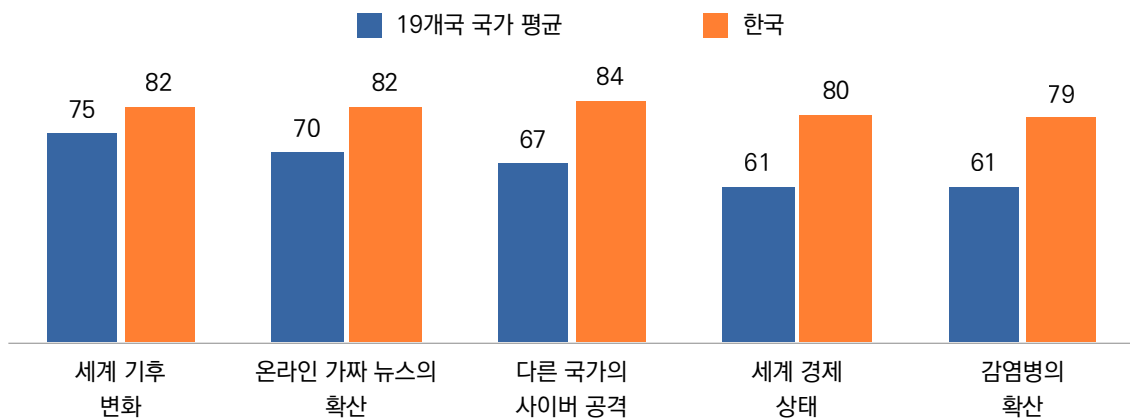
**'즐긴다'는(매우+약간) 합한 비율임.



19개 선진국 시민, 인터넷 가짜 뉴스(70%) 확산이 기후 변화(75%)만큼 큰 위협이라 평가!

- ▶ 미국 퓨리서치센터에서 최근 19개 선진국 시민 24,525명을 대상으로 국내외 현안 5가지 <기후 변화, 온라인 가짜 뉴스, 국가 사이버 공격, 세계 경제 상태, 감염병>에 대해 위협 정도를 조사하였다.
- ▶ 대부분의 국가에서 '기후 변화(75%)'를 가장 큰 위협이라고 답했고, 그 뒤를 이어 '인터넷 가짜 뉴스의 확산(70%)'이 2위를 차지해 '가짜 뉴스'를 '기후 변화'만큼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 한국의 경우 기후 변화(82%), 인터넷 가짜 뉴스(82%), 다른 국가의 사이버 공격(84%), 세계 경제 상태 (80%) 등 5가지 요인 모두 '위협 인식'이 평균 이상으로 높게 응답된 점이 눈에 띈다.

[그림] 세계인의 위협 인식 (19개 선진국 시민, %)**



*자료 출처 : Pew Research Center, Climate Change Remains Top Global Treat Across 19-Country Survey, 2022.08.31.(19개 선진국 성인 24,525명, 전화 및 대면조사, 미국 외 2022.02.14.~06.03/ 미국 2022.03.21.~27)

**중대한위협(Major threat), 약간의 위협(Minor threat), 위협 아님(Not a threat) 등 3가지 보기를 제시함. 여기서는 중대한 위협 비율임.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 정치

[데일리 오피니언\(한국갤럽\) 제511호\(2022년 9월 3주\)](#)

- 정계 주요 인물 개별 호감 여부

[차기 대선주자...범여권은 '오·한·홍 각축', 범야권은 '이재명 독주'](#)

문화일보_2022.09.12.

["이재명 수사 탄압 아니다" 51%..."김건희 특검법 동의" 60% \[창간기획 여론조사\]](#)

중앙일보_2022.09.19.

◎ 사회 일반

[남성 육아휴직자 6년새 6배 늘었다](#)

조선일보_2022.09.06.

[상장기업 성별 임금격차 더 벌어졌다...여성이 3600만원 덜받아](#)

한겨레_2022.09.06.

["아들 낳아봐야 소용없다"는 이 말, 부모 수발에는 맞다](#)

중앙일보_2022.09.09.

[피 안 섞여도, 결혼 안 해도 같이 산다...'비친족 가구원' 작년 100만명 첫 돌파](#)

중앙일보_2022.09.13.

[1020이 아니라 5060이 더 심각... 중년, 문해력 책을 잡다](#)

조선일보_2022.09.09.

[\[그래픽\] 스마트폰·태블릿PC 영유아 이용 실태](#)

연합뉴스_2022.09.10.

[코로나 할린 자리엔 빈곤·고독...서울 '무연고 장례' 2년새 두배](#)

매일경제_2022.09.13.

["생활비·빚부담에...일하는 청년·고령층 늘었다"](#)

연합뉴스_2022.09.13.

["3년 내 퇴사 가능성 70%"...지원자 탈락 시킨 면접관의 정체](#)

한국경제_2022.09.15.

["우울해요" 생명의 전화 두배 늘었는데...상담사는 '통화중'](#)

매일경제_2022.08.31.

[저출산 쇼크에...요양원으로 바뀌는 어린이집](#)

매일경제_2022.09.18.

[여성 2.5% "스토킹 피해 입은 적 있다"... 100m 접근 금지 조치는 3.6%뿐](#)

조선일보_2022.09.16.

["아이들 유치원 가듯, 노인도 센터 간다면"...집에서 여성 보낼까](#)

한겨레_2022.09.15.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어업인구 24% 감소...“방치하면 어촌 기반 무너질 수도”](#)

한겨레_2022.09.19.

[“부장님, 끈대짓 그만하세요” 근무 여건 좋아졌는데 직장인 만족도는 사상 최저](#)

조선일보_2022.08.25.

[“어디든 공포, 살고 싶어요” 직장 스토킹 피해자들 호소](#)

국민일보_2022.09.19.

[한국 망한다는 농담 또는 헐박, 2개 그래프에 담긴 진실](#)

오마이뉴스_2022.09.20.

◎ 청소년 / MZ세대

['극단선택 위험군' 낙인 찍힐라...우울증 숨기는 버랑끝 청소년](#)

매일경제_2022.09.14.

["500만원 그까이꺼?"...20대 10명중 4명은 소액 못갚아 채무불이행자 신세](#)

매일경제_2022.09.12.

● MZ에게 묻다, (뉴시안)

① [1억 생기면? "이재용에 투자" 33% 1위](#) _2022.08.19.

② [플렉스 비용? 무제한이지요](#) _2022.08.22.

③ [직장선택? 고소득자 연봉, 저소득자는 적성](#) _2022.08.23.

④ [비혼?...여성 83%-남성 65% "OK"](#) _2022.08.24.

⑤ [직장? 삼성·현대차 보다 '네카라쿠배'](#) _2022.08.25.

⑥ ["니 아버지 뭐하시노" 제발 묻지 마세요](#) _2022.09.06.

⑦ ["평생직장이요? 끈대들 생각이지요"](#) _2022.09.14.

◎ 경제

[이자도 갚기 어려운 한계기업, 2년새 24% 증가](#)

조선일보_2022.09.14.

[자영업자 빛, 일반인의 4배...청년 4명 중 1명은 실업자](#)

매일경제_2022.09.13.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 **건강**

[90살 이상 살 확률 10%나 높은 성격, 따로 있다](#)

한겨레_2022.09.09.

[잠 못 자면, 뇌의 '이 기능' 떨어진다](#)

헬스조선_2022.09.08.

[하루 1만보 걷기?... '이 정도'만 걸어도 치매 위험 25%로 '뚝'](#)

조선일보_2022.09.07.

[초등학교 4학년 18%가 고혈압](#)

조선일보_2022.09.13.

["치매로 가는 길 '경도인지장애'...국민 58% '못 들어본 말'"](#)

연합뉴스_2022.09.19.

◎ **국제**

[550% 슈퍼 에너지 인플레이에 허리 졸라매는 유럽인들](#)

문화일보_2022.09.07.

◎ **기독교 / 종교**

● **한국교회 세상속으로..., (국민일보)**

① [교회, 청년을 '미래'라 쓰고 '일꾼'으로 부린다](#) _2022.09.07.

② [현재모습, 권위적·보수적... 간극 좁힐 실천 나서야](#) _2022.09.07.

③ ['여성 목사·장로 안수' 73% 찬성... 말뿐인 교회 남녀평등](#) _2022.09.07.

④ [성도 70% 소그룹 참여... 일반인보다 고립감 낮은 이유 있었네](#) _2022.09.07.

[성도 95% "교회 내 빈곤층·노인에 관심 필요"](#)

국민일보_2022.09.07.

[美, 빠르면 2045년경 '기독교인 소수'로 전략](#)

크리스천투데이_2022.09.16.

◎ **칼럼**

[마음의 저울 눈금이 섬세한 MZ세대](#)

중앙일보_2022.09.15.

| 후원 교회 |

강남중앙침례교회, 거룩한빛광성교회, 고현교회, 과천교회, 광림교회, 광주다일교회, 꿈마을엘림교회, 꿈의교회, 노량진교회, 다운교회, 당진동일교회, 대전선창교회, 도원동교회, 동부광성교회, 동행한빛교회, 둔산성광교회, 마산성산교회, 만나교회, 맑은샘교회, 문호교회, 미디어이더교회, 밀양남부교회, 부천명성교회, 베다니교회, 빛과소금교회, 사랑감리교회, 상도중앙교회, 삼천포교회, 상암교회, 서대문교회, 서영교회, 서울드림교회, 서울서교회, 서울서문교회, 서현교회, 성락성결교회, 소망교회, 송학대학교, 수원중앙침례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새에덴교회, 세광교회, 아현장로교회, 안산제일교회, 안양감리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연동교회, 예은교회, 예향교회, 오류동성결교회, 오륜교회, 올리브교회, 울림교회, 원동교회, 은평교회, 이룸교회, 일동동부교회, 일산광림교회, 일산세광교회, 제주연동서부교회, 조양중앙교회, 주안장로교회, 지구촌교회, 진주삼일교회, 진주성결교회, 충신교회, 창동염광교회, 토평교회, 포항대도교회, 포항제일교회, 하나마을교회, 한국중앙교회, 한소망교회(가나다 순) 천주교수원교구 호계동 성당

| 후원 기관 |

고려신학대학원,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감리회 삼남연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독교선교햇불재단, 기아대책, 마을학연구소, 방과후교회학교, (사)교회갱신협의회, (사)아시아미션, 서대문ESF, 서울노회아동부연합회(예장통합), (사)새길과세일, 아드폰테스(예장 통합 목회자 모임), 알파코리아, 지앤컴리서치, 한국교회탐구센터,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목회, 한빛누리, CBMC 광주지식포럼, CBMC 행복한지회, CCC 사역연구소, GoodTV, IFCJ 가정의 힘(가나다 순)

| 후원 기업 |

(주)가인지캠퍼스, (주)그랑블루, (주)리서치랩, 메가리서치, (주)삼신테크, 스페이스허브, (주)시스코프, (주)자연인(아이소이), (주)참든건강과학, (주)참물류, (주)하츠/(주)벽산 (가나다 순)

| 후원 개인 |

가우진, 강영원, 고영관, 고영수, 고인구, 고재환, 고현권, 구봉관, 구영생, 구정오, 권순홍, 김관상, 김기혁, 김동하, 김명준, 김상래, 김상로, 김석철, 김성열, 김성민, 김성식, 김성은, 김숙정, 김시은, 김영철, 김영훈, 김용섭, 김윤철, 김윤환, 김은선, 김은진, 김재욱, 김주형, 김지한, 김현모, 김형태, 김호아, 김홍일, 김홍기, 계만석, 나광균, 남기환, 남성태, 류선자, 류지성, 문성준, 박건호, 박노석, 박명규, 박미경, 박상운, 박세용, 박영철, 박영호, 박재찬, 박종철, 박종현, 박준상, 박준하, 박지훈, 박진철, 박찬주, 박철호, 박현욱, 박형철, 박홍래, 반기민, 반상명, 방승기, 배수정, 백인범, 백인철, 서연우, 서재승, 서해현, 석승호, 석진호, 선원규, 성창민, 송으뜸, 신명자, 신인순, 신지현, 심기식, 안정호, 안태근, 양수민, 엄정석, 여삼열, 오수철, 우애라, 유성민, 유승우, 유명민, 유형찬, 윤동하, 윤여민, 윤영조, 윤치호, 이경만, 이국희, 이광호, 이대식, 이만민, 이미경, 이병희, 이삼열, 이상호, 이성근, 이성수, 이성진, 이승철, 이영선, 이완중, 이요셉, 이윤찬, 이은라, 이인성, 이일영, 이재열, 이정규, 이정아, 이주일, 이지형, 이창형, 이창형, 이춘봉, 이 현, 이현구, 이현식, 이호택, 이훈희, 이희석, 임성빈, 임현주, 장명희, 장병우, 장부식, 장성진, 장우성, 장재영, 장형철, 전병철, 전용림, 전치영, 정기목, 정부활, 정용철, 정종권, 정종섭, 정 준, 정하규, 정희수, 조병길, 조용민, 조의환, 조준환, 조창오, 주학선, 지연희, 지용선, 지중배, 진범수, 지현일, 차용헌, 차원숙, 천성환, 최명영, 최상도, 최상헌, 최용기, 최은아, 최 준, 최준혁, 최태영, 최항재, 최현갑, 한병록, 한재용, 한진광, 한홍근, 함용태, 호재민, 홍익숙, 홍현풍, 황태기, Clara Yoon(가나다순)

| 신규 후원 |

서울중앙교회(담임목사 김진영)

(매월 신규후원자는 당월 마지막 주에 취합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드립니다.)

후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후원 방법 |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 계좌 : 국민은행 343601-04-128846 (재)한빛누리(목회데이터연구소)

2.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직접 계좌 송금으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안내 : 하나은행 203-910046-18604(목회데이터연구소)



| 미션 |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 협력기관 |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재) 한빛누리, 한국교회탐구센터, (주)기독교텔레비전(CTS)

| 섬기는 이들 |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담임목사, 한교총 대표회장)

신원하 교수 | 연구자문위원장(고려신학대학원 전 원장)

| 만든 이들 |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표 | ykji@mhdata.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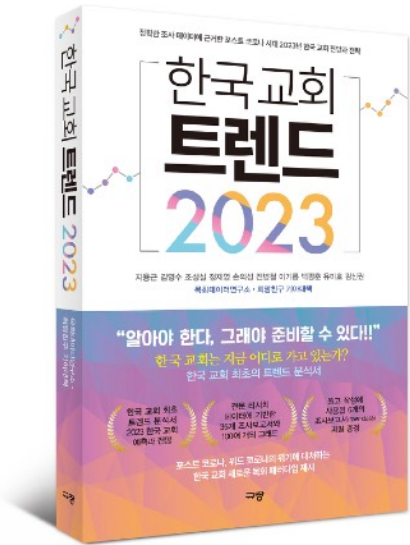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marpro@mhdata.or.kr

민선영 | 목회데이터연구소 연구원 | symin83@mhdata.or.kr

유영민 | 목회데이터연구소 간사 | mhdata@mhdata.or.kr

| MOU 기관 |

(사)교회갱신협의회,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통일지도자훈련센터(송실대학교), (재)기독교선교햇불재단, 기아대책, (사)더조은세상,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원(고신),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교단총회, 마크로밀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문화선교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 (사)아시아미션, 크리스찬타임스, 한국IFCJ가정의힘, (사)한국교회지도자센터(한지터),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 한일연합선교회



| 연구소 소식 . 「한국교회 트렌드 2023」 출간 |

- 목회데이터연구소와 희망친구 기아대책이 공동으로 조사 데이터에 근거하여 한국교회의 트렌드를 진단하고 예측한 「한국교회 트렌드 2023」 책을 6개월 간의 긴 작업을 거쳐 국내 최초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 9월 15일에 첫선을 보입니다. 내년도 목회 계획을 수립하는데 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부록으로 원고 작성을 위한 6개 조사보고서를 드립니다.)



| 월드비전 감사챌린지 |

감사노트 신청

감사노트 10만부를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챌린지기간 : 11월 13일 ~ 19일(20일 추수감사절)
제 공 사 항 : 포스터, 브로셔, 감사노트